



일본 보험회사의 IT 자회사 소유 허용

이소양 연구원

2019년 1월 10일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IT 자회사 소유 허용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참의원 회의에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이번 보험회사의 IT 자회사 소유 허용 논의는 일본 정부의 인슈어테크 산업 활성화 조치인 것으로 분석됨. 최근 일부 일본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 향후 일본 인슈어테크 시장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 2019년 1월 10일 일본 금융청은 보험회사의 IT 자회사 소유 허용을 논의하였으며, 추후 참의원 회의에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¹⁾

- 현행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과도한 비보험 사업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비보험 회사 지분 소유를 10%로 제한하고 있음²⁾
-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참의원 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보험회사의 IT 회사 지분 소유 상한은 기존의 1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될 것임
- 앞서 2016년 5월 일본 정부는 은행의 비은행 회사 지분 소유 상한을 기존의 5%³⁾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바 있음⁴⁾
 - 다만 은행이 투자한 비은행 자회사의 업무 범위는 은행업과 관련된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음

■ 이번 보험회사의 IT 자회사 소유 허용은 일본 정부의 인슈어테크 산업 활성화 조치인 것으로 분석됨

- 현행 일본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IT 자회사 소유를 불허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설립이나 투자를 통해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음

1) 日本経済新聞(2019. 1. 10), 保険会社のIT全額出資認める
 2) M&A Online(2017. 12. 21), M&Aの現場で耳にする2つの「5%ルール」
 3) 은행지주회사의 비은행 자회사 지분 소유 상한은 기존의 1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
 4) 日本経済新聞(2016. 5. 26), 銀行、IT事業進出に道法改正、出資制限を緩和

-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은 회사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서 적은 금액의 투자만으로도 보험회사의 비보험 회사 지분 소유 상한인 1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자회사 소유가 아닌 지분 투자의 경우 인슈어테크 스타트업의 서비스 이용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한편, 프랑스, 영국 정부는 보험회사의 비보험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형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설립이나 투자를 통해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음
- 2015년 9월 프랑스 보험회사인 악사(AXA)는 스타트업인 카메트(Kamet)를 설립하였으며, 카메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Qare)을 출시해 고객들이 의사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유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⁵⁾
- 2018년 1월 영국 보험회사인 아비바(Aviva)는 스타트업인 네오스(Neos)를 인수하였으며, 네오스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주택보험 가입자에게 주택의 화재, 도난, 누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⁶⁾

■ 최근 일본의 일부 보험회사들은 인슈어테크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으며,⁷⁾ 법률이 개정될 경우 인슈어테크 활용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일본의 야노 리서치 인스티튜트(Yano Research Institute)는 향후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 활용 증가로 인슈어테크 시장 규모⁸⁾가 FY2016 4.6억 엔에서 FY2020 11억 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⁹⁾
- 2017년 5월 일본생명보험회사(日本生命保險)는 노무라종합연구소(野村総合研究所)와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2020년까지 500만 명의 의료 정보를 분석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웠음
- 또한 2019년 4월부터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보험상품을 제공할 계획임
- 2018년 7월 일본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회사(東京海上日動火災保險)는 미국 자동차보험회사 메트로마일(Metromile)에 투자해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 시간을 몇 주에서 하루로 크게 단축하였음
- 2018년 12월 미츠이스미토모해상보험회사(三井住友海上火災保險)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로봇상담원 챗봇(Chatbox)을 도입했으며 고객이 보험회사의 상담원과 전화 연결할 필요 없이 실시간 문의나 민원접수를 할 수 있음 **KiRi**

5) 김규동(2018. 11. 9), 「인슈어테크 발전과 보험회사의 역할 확대」,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6) youTalk-insurance(2017. 11. 6), “Neos, UK’s first smart home insurance provider, launches nationwide”

7) インシュアテック/InsurTechの各保険会社の事例まとめ(<http://geinou-ganhoken.info/2018/08/05/2018-insurtech/>)

8) 여기서 말하는 인슈어테크 시장 규모는 야노리서치인스티튜트가 보험회사의 인슈어테크를 활용해 이룬 매출금액을 의미함

9) Yano Research Institute(2017. 5. 29), “InsurTech Market for Life Insurance in Japan: Key Research Findings 2017”